

뉴스와 쟁점 News & Issues

[남미통신]

리우데자네이루 파벨라 취재기

정길화

브라질 상파울루 과를루스 공항에 내려 도심으로 들어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길 양옆으로 붉은 벽돌 또는 판자로 열기설기 지은 가옥들의 군집(群集)을 쉽사리 볼 수 있다. 한눈에 보아도 내구성이라고는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 부실한 집이다. 그런 집들이 산등성이 비탈이나 교외의 허름한 동네마다 즐비하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도시의 빈민가로서 파벨라(favela)라고 한다는 것을 알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파울루뿐만 아니라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대도시의 산동네나 변두리에는 어김없이 이같은 파벨라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어떤 곳은 부유한 지역과 담 하나를 경계로 둔 파벨라도 있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대도시에도 빈민가는 있다. 미국에도 할렘과 같은 슬럼가가 있고 중국에는 후통(胡桐)이, 한국에는 판자촌과 달동네가 있다. 후진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맞물리면서 농촌공동체에서 이탈한 이농자(離農者)들이 도시 외곽으로 모여들어 임노동자로 살면서 빈민촌을 이루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브라질은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지니 계수가 높은 나라로 분류



파벨라의 야경

되는데 파벨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브라질 북동부의 빈곤은 대도시의 파벨라로 인구를 대량 유입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브라질의 파벨라가 빈민가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여기가 범죄의 진원지이라는 것 때문이다. 실화에 근거를 둔 브라질 영화 <신의 도시>에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40%는 파벨라에서 일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마약, 납치, 강도, 절도 등 많은 범죄가 파벨라를 무대로 하고 있다. 이는 파벨라가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범죄 갱단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벨라는 브라질의 양극화를 극명히 보여주는 현장이지만 이것이 우범지대의 대명사가 된 것은 브라질의 아픔이자 모순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의 온상과 동일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도 생계형 범죄만이 아니라 마약, 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의 근거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파벨라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예제도에까지 이르고 현실적으로는 19세기말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군인들의 임시 거주지역이 기원이다. 그들이 살던 산자락에 자생하던 파벨라 나무가 어원이 되었다는 것인데 악명을 덮어쓴 애꾸은 나무가 딱하다.

필자가 브라질에 특파원으로 부임하기 전에 주재원이나 공관원으로 다녀왔던 선임자들을 만나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 빠지지 않았던 것이

“파벨라는 매우 위험한 곳이니 모르고서는 물론이고 취재 욕심으로라도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었다. 물질 모르는 주재원들이 차를 몰다가 길을 잘못 들어 파벨라에서 봉변을 당했다는 등의 비화를 한두번씩은 들었다. 한 브라질 언론인이 파벨라의 마약 거래를 취재하러 들어가다가 글자그대로 뼈도 못추리고 피살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 그런 일이...라며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TV글로벌’의 팀 로페스 기자였다. 그는 망게이라 파벨라 출신으로 파벨라내의 마약 문제를 취재해 고발하다가 갱단의 보복으로 살해됐다고 한다)

그러나 브라질 특파원으로서 파벨라는 탐구와 도전의 대상이다. 피할 수 없는 취재 현장이다. 2011년에 들어 세계 경제 6위권으로 발돋움한 브라질. 그럼에도 파벨라에 사는 주민은 도리어 늘어나고 브라질 2억 인구 중의 약 6% 즉 1천2백만 정도가 파벨라에 거주한다는데 대관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둔 브라질이 대도시 내에 그 큰 우범지대를 두고 어떻게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파벨라는 ‘지금 이곳에서’의 브라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지인들이 만류를 했고,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도 들었다. 주변에서 하도 겁을 주는 통에 파벨라를 취재할 엄두를 내기까지는 부임 후 8개월이 걸렸다. 본 특파원이 월 1회씩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생방송 금요와이드>다. 여기서 K-POP 열기, 블루메나우 옥토버 축제 등의 취재를 하면서 MC 남희석으로부터 부러움을 샀으나(?), 이제는 좀더 현장감 있는 아이템을 하고 싶고, 또 해야 한다는 동기에서 리우 파벨라 취재는 결정되었다. 때마침 2011년 11월 리우의 저 유명한 호싱야 파벨라에 경찰이 투입되어 진압작전을 했다는 현지 뉴스가 있었다. 치안이 유지되는 파벨라부터 먼저 취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파벨라 취재는 필자가 처음도 아니고 이미 여러 언론인들에 의

해서 르포와 탐사 보도가 이루어져 있었다. 리우에는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파벨라가 있는가 하면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파벨라 투어도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답사를 하고 MBC 카메라로 취재를 하는 경험은 특파원으로서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과업이다. 이는 브라질의 속살을 들여다 보는 일이기도 하다. 드디어 2012년 1월 초순, 파벨라가 가장 발달한(?) 리우를 향해 떠났다.

출발에 앞서 리우 치안국에 파벨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더니 IPP(도시국)로 연락을 하라고 한다. 도시국의 사이트에서 겨우 정보를 구했는데 최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우선 리우의 정확한 파벨라 수는 당국에서도 집계가 어렵고 700에서 1,000여개 사이로 본다고 한다. 도시국에서는 30개로 파벨라 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크게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바, 1991년에 리우의 인구는 548만 명 내외로 파벨라 지역은 약 90만 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585만 명 중 파벨라는 109만 명으로 나타났다. 거의 20%에 육박한다. 동기간중 연간 증가율을 보면 전체비율 0.73% 중 도시지역이 0.38%고 파벨라 지역은 2.40%라고 하니 파벨라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브라질의 농촌의 빈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치안 당국은 도심 주변의 범죄율이 높은 파벨라에 먼저 장갑차, 헬기 등 중화기를 앞세운 특공대(BOPE)를 전격투입해 교전(交戰) 끝에 질서를 확보하고 이후에는 평화유지대(UPP)를 주둔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평화벨트를 넓혀 나가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리우에 설치된 UPP는 19개소로 모두 79개의 파벨라를 관할하고 있다고 한다. 파벨라의 수를 1,000개로 보면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8%가 채 되지 않는 것이다.

당국은 월드컵이 열리는 2014년까지 40개소의 UPP를 설치해 모두 165개의 파벨라 지역을 장악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도심 주변의 주요 파벨라들부터 UPP로 거점을 확보하여 마약 조직을 점차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리우의 치안 당국은 경찰이 투입된 파벨라는 취재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신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취재 대상은 호싱야, 바빌로니아, 산타 마르타아 등 치안이 확보된 파벨라였다.

필자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빌로니아 파벨라. 이곳은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걸어서 10분 내외의 거리에 있다.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안내인과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경찰이 질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력과 범죄가 횡행하던 곳이라는 생각에 겁사리 마음을 놓지 못한다. 마을 입구의 어지럽고 그로테스크한 그래피티 그림이 위축된 심사를 더욱 위축시킨다. 옷통을 벗고 샤워를 하던 이가 카메라를 보고 샷대질을 하니 더욱 ‘졸지’ 않을 수 없다. 경사가 심한 비탈길의 계단 오르기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마을 중심에 진입하니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났다. 여기저기 집집마다 지붕위에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는 주택 개량 공사가 한창이었다. 여기서 만난 한 주민은 “폭력조직이 물러나고 경찰이 주둔한 이후에는 밤에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 고 말했다.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나 40년째 살고 있고 식당 영업을 하는 다비지 씨는 “2~3%의 범죄자들로 인해서 예전엔 이곳 주민들이 다 우범자 취급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다” 고 말했다.

바빌로니아 파벨라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호스텔도 있었다. 투숙 중인 독일인 관광객을 만났는데 그는 이틀을 계획하고 왔다가 5일간을 머물기로 했다면서 “이곳이 도심이나 해변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 고 파벨라 내 호스텔을 예찬했다. 호스텔의 시설은 배낭여행객들이 주로 애용하는 게스트하우스 수준이다. 지구촌의 투숙객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호스텔 앞 골목길에는 놓아떡이는 닭이 여러 마리 보였는데 문득 이육사의 시 「광야」가 생각나면서 ‘사람사는 곳’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 UPP 즉 평화유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을 만났다. 그는 “예전

같으면 경찰이라도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총격전을 벌이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주민들이나 경찰이나 서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출퇴근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정도 외에 애로사항은 없다.” 고 말했다. 이 UPP에서는 코파카파나 해변이 한눈에 보인다. 대개 산비탈 달동네에 취치한 파벨라는 거의 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파벨라가 없었다면 필경 대형 호텔이나 고급 주택가가 들어섰을 자리다.

바빌로니아 파벨라에는 4개소에 경찰이 24시간 주둔하면서 범죄 조직이 마을에 다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모두 방탄복을 착용하고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입을 모아 안전함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바빌로니아 파벨라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의 패권을 놓고 범죄조직과 공권력이 보이지 않게 힘을 겨루는 듯한...

이때 돌연 신나는 음악소리가 들려 그곳을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삼바를 연습하는 바테리아(타악기 밴드)였다. 카니발을 앞두고 파벨라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삼바를 춤추고 연주하는 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삼바 학교 관계자는 “파벨라 외부의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들과 교류하며 마을 안에서 소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모습은 리우로서는 놀라운 사회적인 이익” 이라고 말했다.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를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벨라의 안전 확보는 관광객뿐 아니라 리우 전체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브라질의 파벨라는 다양함 그 자체” 라고 전제하고, “특이하고 이국적인 곳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으로 이해되기 바람직하며, 그 가치가 보존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현장 르포를 하러 간 곳은 리우 파벨라의 대명사 호싱야. 영화 <헐크>의 도입부에서 변신한 헐크가 지붕 위를 뛰어다니면서 숨을 헐떡이던 곳이 바로 이 호싱야다. 호싱야는 1920, 30년 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텃밭(호싱야)을 일구어 살면서 이것이 지역



호싱야(Rocinha) 파벨라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신주에 어지럽게 붙어 영켜 있는 각종 전선들, 악취를 풍기는 하수도,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 등은 영화에서 익히 보던 그대로다. 취재진이 호싱야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 동안 중무장을 한 특공대(BOPE) 병력이 일종의 무력시위인 양 비탈길을 실새없이 방탄차량으로 오르내리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약 84%가 북동부 등 외지에서 들어온 유입 인구라고 하는데 현재의 주민은 대략 15만을 상회한다고 한다. 비탈길 구석구석에 빼곡히 들어찬 허름한 벽돌집과 판자집은 호싱야의 전형적인 풍경이다. 이곳에서도 재개발이 진행중인데 채색이 잘 된 4구역과 다른 곳은 외견상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호싱야 파벨라에는 관광코스인 ‘이그조틱 투어(Exotic tour)’와 동행했다. 파벨라 투어야말로 외국인에게는 참으로 ‘이국적인’ 브라질의 풍경이라고 생각했는지 상품 이름도 ‘이그조틱 투어’다.

이 투어는 가이드와 함께 2시간 정도 마을을 걸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민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기념품 등을 구매함으로써

마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주민들과의 대화 등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가이드도 주민들 중에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투입된다. 이 투어에 참석한 관광객은 취재진에게 “주민들 스스로 삶의 방식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안전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브라질의 극과 극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열기가 느껴졌다”고 특유의 활기에 주목을 하기도 했다.

‘이그조틱 투어’ 헤자니 대표는 자신들은 “처음부터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해 왔고, 이 프로젝트가 이 지역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물리력으로 유지되는 일시적 평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호싱야에서도 홈스테이나 호텔 등을 하고 싶는데 아직 치안이 안정적이지 않아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진주(進駐) 이후 호싱야에 평화가 오면서 전혀 새로운 문제가 주민들에게 닥치고 있었다. 지난 40~50여년간 불법 주거지역이던 곳이었기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도전(盜電)과 도수(盜水) 등의 탈법이 일상화되었지만 이제 치안이 회복됨으로써 모두 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어둠의 세력이 파벨라를 지배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 이러한 제세 공과금은 아직 경제력이 미약한 파벨라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도심인 보타포고 지역과 가까운 산타마르타 파벨라를 답사하였다. 이 파벨라는 6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인데 리우에서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리우의 상징 팡지아수카르가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 뒤로는 코르코바두 예수상이 능선 너머로 보이는 천혜의 절경이다. 이 파벨라는 저지대의 보타포고와는

트램카로 연결된다. 이 마을 주민들은 시에서 설치해 무료로 운행되는 이 트램카로 출퇴근을 하고 장도 보고 쓰레기도 버린다.

그러나 그보다 여기 산타마르타 파벨라가 유명한 것은 1996년 마이클 잭슨이 이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기 때문이다. “They don't care about us.” 라는 노래인데 지금이라도 유튜브에서 동명의 제목을 검색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은 이 마을과 북동부의 바이아 지역에서 촬영을 했다고 한다. 산타마르타의 한 옥상에는 이곳에 마이클 잭슨이 다녀갔고 뮤직 비디오를 제작했다는 동상과 모자이크 벽화 등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 근처에서 연 날리는 소년들을 스케치할 수 있었는데 한 소년의 장래 희망을 물어 보았더니 “소방대원이 되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고 답한 것이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나름 유명한 이 파벨라에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뜻밖에 답이 엇갈리고 있었다. “경찰이 주둔하기 전에는 매우 위험한 동네였다. 마약조직들이 활개치고, 총싸움도 많았고 살벌했다. 경찰 초소가 들어오고 나서 범죄가 없어졌고, 트램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는 응답자도 있었지만 “퇴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올 때 트램카에 관광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더 피곤하다” 며 유명세에 불만을 표하는 주민도 있었다. 특히 한 노인은 “내가 70살이 되도록 여기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남의 일에 관심 가지지 않고 내 일만 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 관한 일을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말라” 는 의미심장해 보이는 답을 하기도 했다.

이어서 산타 마르타 파벨라 지역을 관장하는 UPP 호샤 초소장을 만나보았다. 제일 궁금한 것은 당연히 ‘풍선효과’ 다. 리우에서 경찰 주둔하는 파벨라가 10%도 안 된다는데 나머지 90%에는 범죄조직이 더 활개를 치는 것은 아닌가? 또 경찰이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파벨라에 치안이 확보되면서 인근 도심에도 범죄율



산타 마르타의 평화유지대 경찰

이 줄었다” 고 말하고, “경찰의 주목적은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마약 범죄인들은 파벨라에 거주하면서 활동해 주민들이 그들을 신고하기 어려웠지만 경찰이 상주하자 그들은 거점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기존 조직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들의 힘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세력이 약화된다.” 고 설명했다.

요컨대 범죄 조직들이 이동하더라도 세칭 ‘나와바리’ 가 아닌 다른 파벨라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어 ‘풍선효과’ 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긴가민가하다. 이에 대해 연방주립대 사회학과 넬바 비에라 교수는 “마약 조직이 그 지역에서는 나갔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한 곳의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버려지다시피 했던 가난하고 열악한 파벨라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정부의 숙제다.” 라고 지적했다.

한편 호샤 초소장은 “UPP는 영구적으로 파벨라에 존속되어야 한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끝나면 철수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질서 유지된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다시 범죄의 온상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브라질의 큰 손실이다. 과거에는 경찰이 잠시 출동했다가 돌아가면 마약 조직이 다시 활개치곤 했는데 경찰이 계속 주둔을 해서 마약 거래를 근절하고 범죄 조직들이 와해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일개 초소장의 의견이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브라질 당국의 정책과 의지에 달려 있다.

취재에 앞서 가졌던 의문 즉 “브라질의 경제가 잘 나간다는데 왜 빈민가인 파벨라의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에 대한 천착은 충분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브라질 전체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문제라고 넬바 비에라 교수가 지적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북동부와 같은 브라질의 낙후지역에서 부와 일자리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브라질의 파벨라는 지역 격차, 지역 불평등 문제인가?

최근에는 UPP가 주둔하는 파벨라 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는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심각한 범죄 문제를 견디지 못해 파벨라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주민들이 이제 살 만해진(?) 파벨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넬바 교수에 따르면 예의 산타마르타 파벨라에서도 마을을 떠났던 주민들이 치안 확보 이후 다시 돌아와 정착하는 예가 조사되었다고 한다. 인구가 밀집된 파벨라에는 아무래도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표가 밀집된 지역이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니 브라질 오지의 소외된 지역보다는 살기 좋다는 점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치안까지 좋아진다니…….

그런데 이것이 파벨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범죄조직이 물러난 파벨라가 점차 합법화되면서 불법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주어지고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면 전혀 새로운 변화

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산가치의 증대에 따라 기존의 파벨라 주민들이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파벨라에 새로 들어오는 현상이 그것이다. 파벨라의 도미노인가..?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많이 보던 일이 아닌가. 브라질 파벨라의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그 끝은 종잡을 수 없다.

리우에서 파벨라 취재를 끝내기에 앞서 나는 앞서의 바빌로니아 파벨라 안에 있는 호스텔에서 투숙 체험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파벨라 안에서 하룻밤 자보기라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르포 취재를 확실히 하겠다는 PD의 욕심이었다(그러나 행여 무슨 일이 있을까 사뭇 걱정했다). 하긴 그날도 세계 각국에서 온 15명의 배낭여행객들이 호스텔에서 투숙중이었는데 문제는 여행객들이 아니다.

그날 밤 11시경인가 되어서 난데없이 골목에서 두 발의 총 소리가 들렸다. 허걱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혼비백산하며 일어났다. 동행했던 VJ 카메라맨에게 물었더니 확실히 총소리였다는 것이다. 간이 콩알만 해진 가운데 후속 상황이 없을까 그 와중에도 카메라를 스탠바이하고 집 바깥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더 이상의 상황 전개는 없었다. 지나고 난 뒤니까 말이지만 그때 엄청 쫓아 있었다(나꼼수를 아무리 들어도 안 쫓 수는 없는 일이다...). <생방송 금요와이드> 1월 27일 파벨라 프로그램에서 나의 현장 리포팅을 본 지인들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 보이던데 왜 그리 위축되어 있었냐?” 라고 지적했는데 허공에 지나간 총소리를 재현할 길이 없으니 그저 유구무언이다.

정길화 — PD, MBC 주상파울루 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